

# Looking For Your Sound

“음악은 음성 예술이다. 음악은 어떠한 시각적 이미지도 만들어내지 않고, 어떠한 단어나 견해로 말하지 않는다. 오직 소리만으로 말한다. 음악이 음성 예술이기에 연주자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와 본분은 바로 음색에 신경 쓰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자주 ‘좁은 의미에서의’ 기법에 집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음색을 그 다음으로 미뤄놓는다.”

이 말은 모스크바 음악원에 1922년부터 1964년까지 교수로 지냈던 현존하는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겐리흐 네이가우스가 한 말이다. 즉 모든 음악가들이 어떻게든 음질의 중요성을 깨닫는다면 학생들은 부차적으로 음질에 몰두하게 되고, 이는 그들이 연주할 때 음악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



### 어떤 소리를 낼까?

음색을 내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당신의 악기를 통해 찾고자 하는 이상적인 소리의 심상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물론 이 '이상적인 음색'은 매우 주관적이기에 연주자마다 각기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걸맞은 소리를 찾아야 한다. 모든 이들은 선천적으로 특유의 목소리와 악기 소리를 통해 구현되는 고유의 무언가를 지니고 있다. 한 마디로 연주자의 소리는 곧 그의 음악적인 목소리이다.

'심상'은 다양한 매개변수로 만들어진다. 물론 이 '심상'은 악기의 종류와 당신을 이끄는 특정 악기만의 음색, 그리고 아마 당신이 재현하고자 하는 인기 있는 연주자들이 내는 동일 악기의 소리에 따라서도 만들어진다. 또한, 당신이 좋아하는 다른 악기의 음색이나 가수로부터도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이 영향을 끼치는 것들의 원천은 무한하며 때로는 각기 다르기도 한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당신은 동일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가 내는 소리 같이 특정한 소리를 싫어하고 그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쓸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 소리를 위한 작업이란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임을 뜻한다

특유의 수정 같이 맑은 음색으로 누구인지 곧바로 알 수 있는 유명 재즈 피아니스트인 키스 자렛은 "음악가가 본인의 소리에 신경 쓰고 있다면 그는 머릿속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소리와 실제로 본인이 연주할 때 듣게 되는 소리의 조화를 이루고자 애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심상과 구현되는 소리의 조화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는 악기로 낼 수 있는 아름답고 풍부하며 흥미로운 음색을 발전시키는 것에 있어 중요한 접근법이다. 필자는 학생들이 연습할 때 음질에 관해서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봐왔다. 음계를 연주하고, 연주하고, 조율까지도 하는데 왜 좋은 소리를 내는데에는 소홀히 하는가? 학생들 본인의 소리를 향상시키고 연습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하는데도 말이다. 게다가 특정 작품의 인트로네이션이나 박자에 신경 쓸 때도 음질에 주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 소리 요소

**울림:** 아마 울림은 깊고 풍부한 소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자 실제적인 요소다. 현악기의 경우 활의 압력으로 현이 얽매어 있지 않고 풍부한 소리를 내며 진동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 다양한 몸짓과 활의 속도는 이러한 진동을 증폭시킨다. 여러 개의 용수철이 이어진 것처럼 어깨부터 손가락까지의 근육 계열이 느슨해지는 것과 압력 간의 적절한 균형은 제대로 된 방식으로 현을 진동하게 한다. 지나친 압력은 현이 제대로 진동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압력과 활의 속도, 출발점으로부터 거리의 조합은 더 많은 주의와 시간을 쏟아야 하는 정교한 일이다.

**조음(調音):** 소리의 질과 특징은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음악가가 내는 음의 종류를 더욱 풍부하게 할 조음의 넓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중요하다. 만일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연음인 'M'부터 경음인 'K'까지 무한대로 변화하는 자음을 떠올리면 더욱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음색의 다양성:** 레퍼토리와 감정 표현, 분위기에 따라 울림도를 달리하는 음악가는 작곡가의 음악적인 의도를 온전히 표현하면서 작품을 생기 넘치면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 음질과 음량의 불편한 관계

음량을 찾는 것은 가끔씩 우리들의 일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특별히 주의하면서 접근해야 한다. 강렬한 소리를 찾는 것은 음악가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쉽게 안겨줄 수 있다. 풍부하고 강렬한 음색은 화음으로 채워진 음색인데, 자유롭게 진동할 수 있는 현악기를 바로 그 예라고 말할 수 있다. 현의 과도한 팽팽함은 악기가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거대한 소리를 키우는 것은 음질을 손실시켜 가면서 이뤄져서는 안 된다. 거대한 소리를 내는 것은 그저 아름다우면서 웅장한 소리를 내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다.

### 당신만의 악기, 당신만의 파트너

모든 악기는, 특히나 현악기의 경우 음악가의 Sonority(울림도)는 그가 연주하는 악기의 특성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 하나의 악기는 개성이 강할 수 있고, 애쓰지 않아도 아름답게 소리낼 수 있다. 그리고 힘도 갖추고 있다. 모든 음악가는 자신만의 이상적인 악기를 가지길 바란다. 그러나 필자는 연주자 그 자신이 먼저 소리를 제대로 내기 위해 정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다음에 악기가 본인에게 보다 힘을 실어줄지 그렇지 않을지 알 수 있다고 본다. 즉 연주자는 본인이 가진 악기의 질을 고려하기 전에 자신의 음질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물론 악기 그 자체나 활의 질, 연주자가 쓰는 현이나 리드는 음색이 나타나는데 크게 관여한다. 그리고 연주자는 앞에서 언급한 요소들을 고려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악기를 가장 잘 이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항상 필수적이다. ♪



글 에르완 리샤 Erwan Richard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파리 국립고등음악원 최우수 졸업  
-런던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부수석,  
인스브루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종신 수석 역임  
-현재 수원대학교 음악학부 교수, 오푸스 앙상블, 예라토 앙상블,  
현대음악앙상블 소리, 코리아나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  
화음 챔버 오케스트라 멤버